



굿모닝, 굿모닝? (초등 4단계)

미래아이 |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표지 탐색하기

<굿모닝, 굿모닝?>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굿모닝, 굿모닝?'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책 제목과 그림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세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개 이름? 어, 굿모닝이오, 굿모닝!”
‘굿모닝이라고, 내 이름이?’**

머리 위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던 것이다.

얼떨결에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버둥거리지도 않았다.

“너도 혼자인 모양인데, 집을 나온 게냐? 아니면 너도…….”

할아버지 이마와 눈가의 주름이 조금 더 깊이 패는 듯했다.

주인에게 버려진 개와 가족에게 버려진 할아버지의 가슴 찡한 가족 되기!

① 윗글에서 '굿모닝'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

② 윗글에 나타난 '할아버지'와 '개'의 처지를 공통점에 주목하여 파악해 보세요.

⇒



굿모닝, 굿모닝? (초등 4단계)

미래아이 |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굿모닝, 굿모닝?>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더러운 물을 뒤집어쓴 공을 입으로 물자니 여간 꺼림칙한 게 아니었다.

•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에게서 케케묵은 냄새가 났다.

• 맥없이 짓었다. 그 소리는 울씨년스러운 공원으로 퍼져 나갔다.

•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갔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릿했다.

• 주전자는 비어 있었다. 그 사이에 물이 모두 줄아 버린 것 같았다.

(나) • “게다가 우리가 먹을 음식에 손을 댔고. 이래도 ㉠시치미를 떼 텐가?”

• 할아버지에게 가야겠다는 생각에 혼란이 왔다. 그런 내 생각을 눈치챈 걸까? ㉡꽤
기를 박듯이 두리가 한 마디 덧붙였다.

• “녀석, 무얼 그리 쿵쿵거리며 돌아보고 섰어? 네가 살 집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구나.”

1) (가)의 밑줄 친 낱말의 기본형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① 물건 따위가 아주 오래되어 낡다.

②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있다.

③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

④ 보기에 날씨가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

⑤ 심리적 자극을 받아 마음이 순간적으로 약간 흥분되고 떨리는 듯하다.

2) (나)의 밑줄 친 ㉠~㉢의 표현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연결하세요.

㉠ 시치미를 떼다 •

㉡ 만족할 수준에 이르러 만족하게 여기다.

㉢ 꽤기를 박다 •

㉣ 뒤탈이 없도록 미리 단단히 다짐을 두다.

㉤ 성에 차다 •

㉥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다.



굿모닝, 굿모닝? (초등 4단계)

미래아이 |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굿모닝, 굿모닝?>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이른 봄 햇살에 ()을 감고 있던 나는 퍼뜩 일어났다.
• 그러자 곧바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렇게 ()을 자 보기는 처음이었다.
• “넌 아직도 사람들에게 대한 ()을 버리지 못했구나.”
• 나흘째 되던 날은 아침부터 ()가 내렸다.
• 시벨겐 불꽃이 방 안에서 ()을 하고 있었다.
- (나) • 답답한 것만 빼면, 쥐가 뜯어 먹은 것처럼 생겨서 ‘좀비 개’가 되어 버린 내가 숨어 지내기에 ㉠□□□□이었다.
• ‘아니예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 몸이 더 시리실 텐데요.’
슬쩍 몸을 빼 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였다.

1) (가)의 각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 ① 진눈깨비 : 비가 섞여 내리는 눈.
② 미련 :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
③ 용트림 : 거드름을 피우며 일부러 크게 힘을 들여 하는 트림.
④ 한뼉잠 : 사방, 상하를 덮거나 가리지 아니한 곳인 한데에서 자는 잠.
⑤ 먹 : 냇물이나 강물 또는 바닷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씻거나 노는 일인 ‘미역’의 준말.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 ㉠□□□□ : 조건이나 상황이 어떤 경우나 계제에 잘 어울림.
㉡□□□□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초성힌트 : 모로ㄱㄴ)



굿모닝, 굿모닝? (초등 4단계)

미래아이 |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마지막 산책 / 고물상의 두리

<굿모닝, 굿모닝?>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풀밭을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 ‘도대체 어딜 가신 거야?’
큰 원을 그리면서 풀밭을 돌아다녔다. 그래도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를 잃어버렸나?’
마음이 다급해지니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부지런히 사방을 돌아보고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달려갔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 풀밭 이쪽저쪽을 여러 번 오갔지만 아저씨는 없었다.
- (나) 물론 그럴 것이다. 어떻게든 아저씨를 찾아야 하니까.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금방 떠난다고 말하기가 좀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두리가 씩 웃었다.
“애, 버려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넌 버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거야.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줄게. 버려졌다는 건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이야.”
“돌아갈 곳……이 없다고?”

1) (가)에서 ‘나’(굿모닝)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을 두리번거렸고 □□을 그리면서 풀밭을 돌아다녔지만, □□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을 오가는 사람들만 눈에 띄었음.



□□이 다급해져서 □□를 잃어버렸다는 □□ □□이 들었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을 돌며 아저씨를 찾아다녔음.

2) (나)에서 ‘두리’가 ‘나’(굿모닝)에게 말한, ‘버려졌다’는 뜻은 무엇인지 쓰세요.





굿모닝, 굿모닝? (초등 4단계)

미래아이 |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밥 타는 할아버지 / 버려진 사람들

<굿모닝, 굿모닝?>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자 남자는 통명스럽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거 참, 오랜만에 몸보신이나 하려 했더니…….”
 다시 한 번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듯했다.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기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
 남자가 멀어져 가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 “콩!”
 고맙다고 대꾸했다. 그러자 알아들었는지, 할아버지는 나를 놓아 주었다. 얼른 뒤로 물러나 멀리 달아났다.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 “무료 급식소는 뭐야?” /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는 곳이지.”
 “그럼 할아버지가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그곳에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은 보통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이나 거리를 떠도는 부랑자들이지. 우리처럼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사람들 중에도 우리처럼…….”
 “그 사람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바로 버려졌다는 거야!”

1) (가)에서 ‘남자’는 ‘나’(굿모닝)를 잡아서 오랜만에 몸보신이나 하려 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든 생각들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두리’가 말한 ‘우리’와 ‘할아버지’의 공통점을 찾아 쓰세요.

⇒



굿모닝, 굿모닝? (초등 4단계)

미래아이 |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혼자 살아가는 법 / 할아버지의 파란 대문 집

<굿모닝, 굿모닝?>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런데 말이야…….” / “응. 말해 봐. 뭔데?”
 “버림받았으면 꼭 혼자 살아야 하는 거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버림받은 개를 누가 돌보겠어. 특히㉠…….”
 말끝을 흐리면서 두리는 잠시 숨을 돌렸다. 그러는 사이 내가 먼저 말했다.
 (나) “실망이군. 나는 네가 나름대로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줄 알았어. 혼자 사는 법을 익히려는 줄 알았지. 그런데 고작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
 두리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머뭇거림 없이 두리는 딱 잘라 말했다.
 “그래도 안 가는 게 좋겠어.” / “왜?”
 “말했잖아. 우리처럼 버려진 사람들은 밥 한 끼도 먹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네가 할아버지를 따라가더라도 예전처럼 배불리 먹긴 힘들 거야. 아니, 그러다가 혹시라도 서로가 짐이 된다면 또㉡…….”
 두리는 문득 말을 끊었다. 하지만 나는 두리가 하려는 말을 알고 있었다.

1) (가)~(나)에서 ㉠과 ㉡에 생략된 내용을 생각하여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 : “□같이 □가 뜯어 먹은 것 같은 □ 를 누가 돌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니?”	㉡ : “□이 되면 버린다고?” “그래.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 너도, □□□□도.”
---	---

2) 다음 각 빈칸을 채워 (나)에서 ‘두리’가 ‘나’(굿모닝)에게 한 말을 정리해 보세요.

네가 나름대로 □□를 구하러 다니며 □ □□□을 익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에 대한 □□을 버리지 못했더니 실망이군.	우리처럼 □□□□은 밥 한 끼도 먹 기 힘들고, 네가 □□□□를 따라가더라도 예전처럼 □□□ 먹긴 힘들 거야.
--	---



굿모닝, 굿모닝? (초등 4단계)

미래아이 |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안녕, 굿모닝? / 우리 할아버지랍니다

<굿모닝, 굿모닝?>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하지만 말이다. 가족이란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해야 하는 거야.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거리로 내몰면…….”

할아버지가 말끝을 흐렸다. 그러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도 멈추었다.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눈가가 다시 젖어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렇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너와 나는 이렇게 새 가족을 다시 만났지 않니?” / “경경!” / “네, 맞아요!”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할아버지가 다시 웃고 있었다.

(나) “오늘 하루 어땠니? 힘들지 않았니?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산단다.” / “경경!”

‘아니,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할아버지도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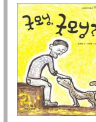
“그래. 할아버도 힘들지 않았단다. 어제 그제만 해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손수레가 가볍더구나.” /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발 아래를 맴돌며 물었다.

“정말 이상하지? 혼자 할 때는 참, 하나도 힘이 안 나더니만, 네 녀석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힘이 막 나는구나. 참, 신기한 일이야. 허허허!”

1) (가)에서 ‘할아버지’는 가족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해야 하는 것이고, ‘나’(굿모닝)라는 새 가족을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써 보세요.

2) (나)에서 ‘할아버지’가 ‘나’(굿모닝)에게 말한, 힘이 막 나는 이유를 찾아 쓰세요.

⇒



굿모닝, 굿모닝? (초등 4단계)

미래아이 |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사라진 굿모닝 / 아침에 만나요

<굿모닝, 굿모닝?>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래서 여기서 공주를 기다린다는 거야?”

“응. 혹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 “나쁜 녀석!”

두리가 갑자기 싸늘하게 말했다. 송곳니까지 드러냈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두리야! 왜 그래?” / “왜 그러냐고? 넌 할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걱정되지도 않니? 할아버지는 너를 가족처럼 생각한대며?” / “그,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나 알고 있니?” / “하, 할아버지를 만났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 “지금도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널 기다리셔.”

(나) “나쁜 녀석! 할아버지는 밥도 안 먹고 며칠씩 너를 기다렸어. 그런데 너는 지금 뭘 하는 거야!” / 그 말이 가슴을 후벼 찔렀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다.

“그만 뒤! 네놈은 가족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니야. 그저 네놈 몸이 편하기 위해 공주를 찾아다니는 거야. 나쁜 놈!” / 두리가 화를 내며 외쳤다.

그랬다.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를 안 지 며칠 안 되는 두리도 할아버지를 구하려 하는데, 나는 무얼 하려는 거지?

이를 악물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불길은 뜨거웠고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다.

1) (가)~(나)에 나타난 ‘두리’와 ‘나’(굿모닝)의 대화를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나’가 여기서 □□를 기다렸다고 말하자, 두리는 싸늘하게 □□까지 드러내며 □□□□가 지금 □□ 하고 계신지 알고 있냐고 말했다.



□□는 ‘나’가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하지 않자, ‘나’는 □□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편하기 위해 □□를 찾아다녔던 것이라고 말했다.

2) (가)~(나)에서 ‘할아버지’는 ‘나’(굿모닝)를 기다리며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여 쓰세요.

⇒



굿모닝, 굿모닝? (초등 4단계)

미래아이 |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문장력 쑥쑥 키우기

1) 다음은 <굿모닝, 굿모닝?>에 나온 본문 그림입니다. 각 그림을 보고, '굿모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인지 정리하여 쓰세요.



2) 이 이야기에서 '굿모닝'은 불길에 갇힌 '할아버지'를 온 힘을 다해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책 또는 인터넷에서 '사람을 살린 개 이야기'를 찾아 써 보세요.



굿모닝, 굿모닝? (초등 4단계)

미래아이 |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1쪽	(예시답안) 1) 아침에 인사할 때에 사용하는 영어 인사말이다. 2) 나무의 등걸에 앉은 할아버지가 미소를 활짝 지으며 오른손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제목은 할아버지의 머리 위에 <모양>으로, '굿모닝?'이 더 크게 쓰여 있다. 3) ① 할아버지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개의 이름이다. ②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버려졌고, 개는 주인에게 버려졌다.
2쪽	1) ②, ①, ④, ⑤, ③ 2) ㉠-㉡, ㉢-㉣, ㉤-㉥
3쪽	1) ⑤, ④, ②, ①, ③ 2) ㉦ : 안성맞춤, ㉧ : 막무가내
4쪽	1) • 사방, 큰 원, 아저씨, 풀밭 • 마음, 아저씨, 불길한 생각, 사방 2)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
5쪽	1) (예시답안) 남자는 떠돌이 개들을 잡아 보신탕 집에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할아버지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가족이 벗겨져서 끓는 물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다. 오랜만에 몸보신이나 하려 했다는 남자의 말에서 인간의 잔인한 측면이 보였다. 2) 버려졌다는 것
6쪽	1) ㉨ : 나, 쥐, 개 ㉩ : 집, 장담, 할아버지 2) 먹이, 혼자 사는 법, 미련 / 버려진 사람들, 할아버지, 배불리
7쪽	1) (예시답안) 가족은 엄마와 아빠를 중심으로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나'를 보니 가족은 반드시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된다. 2) 혼자 할 때는 하나도 힘이 안 났는데,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서
8쪽	1) 공주, 송곳니, 할아버지, 어떻게 / 두리, 가족, 몸, 공주 2)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밥도 안 먹고 며칠씩 '나'를 기다렸다.
9쪽	1) ① '굿모닝'이 아저씨가 있던 풀밭의 의자로 돌아가는 장면. ② 가족장갑을 낀 남자와 잠자리채를 든 남자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굿모닝'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 ③ 할아버지가 돌아온 '굿모닝'을 품에 안고 있는 장면. 2) 생략.